

영광 백수읍 태양광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 꼼수 ‘논란’

영광 백수읍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대상을 조개 환경영향평가를 교묘히 피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8월 A업체와 58인이 영광군 백수읍 상사리 1788번 일대 약 112만8천680㎡에 16MW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신청해 전남도가 허가를 내줬다.

이들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지난 8월 말 영광군에

각각 2-3MW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비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이 100MW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이지만, 사업 승인을 받은 59인은 각각 2-3MW로 분리한 허가서류를 제출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광군은 최근 환경부에 해당 내용을 질의해 “서류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라

대규모 용량 2-3MW로 조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郡 동일 사업자 판단 여부 놓고 道사전감사 컨설팅 요청

도 개발, 운영, 관리 등이 연관돼 있다면 사실상 같은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답변을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이다.

환경부는 전기발전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하는 전남도가 승인기관이라 판단하고 있으나 전남도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권한을 가진 영광군이 승인기관이라고 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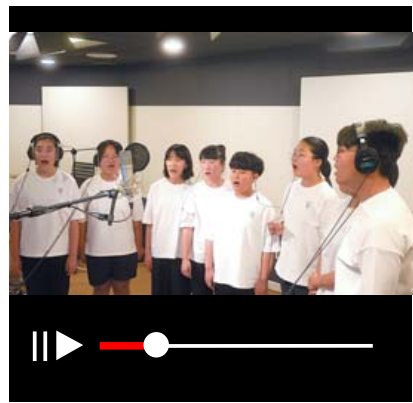
상충된 입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전남도와 상충된 입장에 따라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유권해석을 위해 지난달 25일 도 감사관실에 사전감사 컨설팅을 요청한 상태다.

인명영 영광군의회 의원은 제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계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갯벌 위에 태양광시설을 추진한 국내 처음 사례라 환경부에서도 전남도에 미루고, 전남도는 공유수면 허가권을 가진 영광군에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160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사업자들은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사전감사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점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와 군이 상충된 입장인 만큼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으로 이달 중순 이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광=김동규기자



“다함께 부르자, 해남의 노래”

郡, 뮤직비디오 제작 유튜브 공개
동요·트로트·발라드 3색 노래

해남군이 대국민 공모로 제작한 ‘해남의 노래’가 뮤직비디오로 완성되며 지역 홍보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의 정서를 널리 알리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땅끝을 노래하다, 해남의 노래’를 제작했다.

지난해 열린 작사공모전이 전국에서 113건의 작품이 접수되며 해남의 매력을 담은 수작의 노랫말들이 다수 선정됐다.

대상을 받은 동요 부문 ‘꿈마을 꿈마을’, 발라드 부문 ‘땅끝에 가자’, 트로트 부문 ‘해남을 찾아 나를 찾아’는 작곡 과정을 거쳐 노래로 완성됐으며, 올해는 가수 선정과 뮤직비디오 제작까지 완료했다. (사진)

이번 뮤직비디오는 해남의 관광지와 농수특산물 등을 담아내며 노래의 가사와 분위기에 어울리는 영상으로 제작됐다.

동요 부문 ‘꿈마을 꿈마을’은 해남의 명소와 한반도의 시작과 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땅의 끝마을, 이방의 꿈마을’, ‘한반도의 처음과 끝 해남’ 등 후렴구가 돋보였다.

특히 해남군 관내 북평중, 북평초, 화산초 학생 8명이 음원 녹음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발라드 부문 ‘땅끝에 가자’는 가수 김추리가 노래를 부른다. 가사의 제목에 맞게 땅끝마을 인근에서 촬영했고, 넘어지기 쉽고 포기하기 쉬운 청춘들이 땅끝에서 새로 시작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가수 김다나가 출연한 트로트 부문 ‘해남을 찾아 나를 찾아’는 주대상층인 장년층을 겨냥한 흥겨운 멜로디와 배경이 인상적이다. 해남읍 오일시장을 배경으로 ‘행여, 나 없을 때 올다가 그 남 같까봐’, ‘해남을 찾아 나를 찾아’ 등의 후렴구가 귀에 착착 감긴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해남군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 중이다. 트로트 부문은 조회수 5만8천회를 달성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좋은 노래 한편으로 지역 브랜드 이미지와 홍보 효과가 상승한다”며 “해남의 노래가 전 국민이 애창하는 노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기자



무안 희망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무안군 북함문화센터에 가족복지의 중심점 역할이 될 무안군가족센터·공동육아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가 지난 2일 개소식을 열고 김산 무안군수와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 군의회 의원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한 다문화가족,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무안군가족센터는 무안을 무안으로 있던 기존 시설을 이전해 1-2층에 위치하며 ▲1층 교류소통공간, 교육장, 요리교육장 ▲2층 가족센터 사무실, 면접·집단·전화상담실이 들어서 가족행태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무안군 북함문화센터에 가족복지의 중심점 역할이 될 무안군가족센터·공동육아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가 지난 2일 개소식을 열고 김산 무안군수와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 군의회 의원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한 다문화가족,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무안군가족센터는 무안을 무안으로 있던 기존 시설을 이전해 1-2층에 위치하며 ▲1층 교류소통공간, 교육장, 요리교육장 ▲2층 가족센터 사무실, 면접·집단·전화상담실이 들어서 가족행태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무안군 제공)

강진, 첨단기술 도입 교통사고 예방 ‘주력’

郡, 좌회전 감응 신호 설치·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

강진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신호 위반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이 적용된 신호교차로와 방재교차로는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았던 곳으로 교통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운전자 지원도 눈에 띈다. 강진군은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를 지원하며, 운전 부주의나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명의 고령운전자 차량에 장치를 설치했으며, 운전자가 차선을 벗어날 때 경고음을 통해 위험을 인지할 수 있다. 지원 사업으로 장치를 설치한 한 운전자는 “운전할 때 더 편안하다”며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재이 안전재난교통과장은 “좌회전 감응신호와 고령운전자 지원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기자

고경욱, 목포 섬 관광 육성·지원 조례 발의

지역경제·관광산업 동반 성장 도모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더불어민주당·연산·원산·용해동·사진)이 제30회 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에서 ‘목포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목포시는 외달도 등 5개의 섬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서 종합 개발 계획과 관광 종합 개발계획이 부서 간 업무 불명확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섬 관광 자원의 발굴 및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시행 ▲섬 관광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섬 주민과의 협력 강화 ▲섬 관광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추진 등 지속 가능한 관광 발

전을 위해 관광객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경욱 의원은 “목포시는 아름다운 섬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관광 산업의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섬과 관광을 분리한 계획이 아닌 섬 관광만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목포시의 섬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섬 관광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완도군, 한국공공브랜드 종합 대상 3관왕

해양치유 도시 공익적 가치 높이 평가

완도군이 제2회 한국공공브랜드 시상식에서 종합 대상 3관왕을 차지했다.

3일 완도군에 따르면 종합 대상인 그랑프리(GRAND PRIX)와 환경·사회·제도(ESG)-사회적 책임(CSR)-공유 가치(CSV) 부문에서 대상, 디지털 마케팅 부문 최우수상 등 3관왕을 수상했다. (사진)

완도군은 해양환경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ESG를 실현하는 공적 경영 활동과 인간과 사회의 치유, 해양과 지구를 치유하는 방안

을 모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개인과 사회적 치유를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 해양자원·환경 보전 등 사회·환경 부문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은 가치(CSV) 부문에서 대상, 디지털 마케팅 부문 최우수상 등 3관왕을 수상했다. (사진)

완도군이 가진 경쟁력이 완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치유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확산시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완도=윤보현기자

나주시, ‘안세영 선수 제패 기념’ 배드민턴 대회 성료

전국 2천500여 동호인 참가
80여 종목 경기

나주시가 안세영 선수의 올림픽 금메달 업적을 기념하는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이틀간 나주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에서 ‘안세영 파리올림픽 제패 기념 및 제17회 나주시 페어컵 전국 배드민턴 대축제’를 개최했다. (사진)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30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내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안 선수의 업적을 기념하고자 명칭을 특별히 변경해 개최했다.

대회는 나주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나주시, 나주시체육회, 전남배드민턴협회 후원했으며 전국 1천200여명, 2천500여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80여 종목에서 경쟁을 펼쳤다. 개최식엔 윤병태 나주시장, 신정훈



국회의원, 이재남 시의회의장, 김재덕 나주시체육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체육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던 안 선수의 부친 안정현씨가 함께해 참가자들의 선전을 응원했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의 딸 안세영 선수는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준 선수”라며 “앞으로도 제2, 3회 안세영을 위한 스포츠 인재 발굴과 지역 체육 발

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파리올림픽 이후 안 선수를 나주시 홍보대사로 위촉, 제30회 나주시민의 날에선 시민의상(교육문화부문)을 수상하는 등 고향 나주를 빛낸 안 선수를 각별히 예우하고 있다.

특히 안세영의 이름을 딴 체육관 및 거리 조성, 유망주 육성을 위한 배드민턴 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정종환기자

신안, 고향사랑기부로 ‘작은 섬 정원화’ 추진

신안군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매화도(암해), 선도(지도) 등 작은 섬에 정원을 조성하며 섬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3일 신안군에 따르면 주민과 향우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이 사업은 ‘1섬1정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작은 섬일지라도 사람이 거주하면 정원을 만들어 자부심을 고취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인적이 드물던 작은 섬들은 꽃과 나무로 채워진 정원으로 탈바꿈하며 따뜻한 온기를 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소문을 타고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향우민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인구소멸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작은 섬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에게는 행복을, 방문객들에게는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향사랑기부금 덕분”이라며 “기부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퍼플섬, 수선화의 섬, 수국의 섬, 맨드라미 섬, 아자니아 섬 등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접목한 특색 있는 바다 위 정원을 조성하며 섬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신안=양홍기자